

I. 시작하는 말

대속죄일은 평상시의 속죄제와는 다르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걸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킬 때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며, 지성소에서만 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선 대속죄일을 통해 우리에게 결국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II. 중심 말씀

1. 대속죄일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만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두고 대제사장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기존의 대제사장과 구분되도록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주실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2. 대속죄일은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선 히브리서를 통해 매해 반복되어 드리는 제물의 한계에 대해 말씀해주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물(양과 염소)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는 결국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흠 없는 제물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양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나눔 질문)

3. 대속죄일은 우리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고 하시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지성소가 된 성소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대속죄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 우리가 서게될 심판의 날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283)

- (1)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 (2)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 (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 (4)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후렴)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